

다음은 2001년 발행된 버트 솔로스버그의 책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서 작가 동의 하에 에필로그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지시에 따라 조금 수정되었다.

## 이것이 최후의 한마디인가?

### 에필로그

KAL 007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흘렀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건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다. 더욱 최근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들에 밀려, 분노는 희석되고 의분에 떨었던 사건들은 서서히 잊혀진다. 개인적인 고통 또한 사그러지고 자녀와 손자 그리고 새로운 친구와 현재 누리는 생생한 관계에 밀려 마음 한 구석으로 나 앉는다. 그러나 무더졌을 뿐,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문득 우리 앞에 생생하고 강렬하게 다가와 평온한 현재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KAL 007 기 사고로 한국인 아내를 잃은 미국인이 KAL 007 승객 생존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재혼한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을 찾았다. '아내가 정말 사고에서 죽지 않았을까?' '지금 그녀는 살아 있을까?' 당장은 믿지 못했지만,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떠났다. 아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른 많은 희생자 배우자들도 재혼을 했다. 모든 참사는 그렇게 잊혀지는 법이다.

KAL 007 사건에 개입했던 소련군 관계자들도 평상시처럼 살아갔다. 그런 대형 사건조차 소련군부 내의 지위와 경력 체계에선 일상적인 사건 중 하나 정도로 치부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페트르 세메노비치 키르사노프 (Petr Semenovitch Kirsanov) 공군 중장은 캄차카 반도 상공 국토 방공의 허점에 책임을 지고 강등당했다. 로마넨코 KGB 장군은 강등된 후, 유배되었거나 처형당했다— 아마 승객이나 블랙 박스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탓일 것이다.

격추 24시간 내에 사할린 섬에 도착, 비밀 국가 위원회와 은폐 작업을 지휘했던 발렌틴 I. 바레니코프 (Valentin I. Varennikov) 중장은 국방 차관과 지상군 총사령관으로 진급했으나 1991년 고르바초프 축출 쿠데타 시도에 가담했다가 수감되었(고 이후에 풀려났다. 1994년 러시아 연방 대법원 군사 협의회는 그에게 "무죄" 선언을 했다. 그 후 1995년 12월 17일, 그는 러시아 연방 소집 주 의회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1996년 1월 주 의회 국가 보훈 위원회 의장이 되었다.

이반 모이세비치 트레차크 (Ivan Moiseevich Tretyak) 장군과 블라디미르 L. 고브로프 (Vladimir L. Govrov) 장군은 둘 다 모스크바 국방부로 승진했다—트레차크 장군은 국방부 차관 겸 국토 방공군 총사령관 (1991년), 고보르프 장군은 민방위 총본부 국방 차관이 되었다.



사진: 모이세비치 트레차크 장군

<http://www.peoples.ru> 승인 하에 사용됨

블리디미르 크루초프는 격추 당시 KGB 위원장이었다. 이 영향력으로 그는 모스크바에서 래리 맥도날드 미 하원 의원을 심문했다. 크루초프는 나중에 KGB의 수반이 되었고, 1991년 쿠데타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사면받았다. 그는 그가 했던 경험에 대해 책을 한 권 펴낸 바 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구이자 조연자로서 2000년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개인적 게스트로 참석했다. 크루초프는 현재 때때로 강연을 하고 있다.

무선 기술 제1845 부대 당직 사령으로 KAL 007기의 비행 항적을 추적하고도 승진에서 누락되어 앙심을 품었던 발레리 블라디미로비치 리즈코프 대령 (Valery Vladimirovich Ryzhkov). 그는 마침내 승진하여사할린 맞은편 소련 연해주 아무르강의 마리인스코 정착촌에 위치한 무선 기술 제 2213 부대 지휘관이 되었다.

극동관구 공군 사령관이자 격추 당시 "군사 전략" 사령관이었던 블라디미르 카멘스키 장군은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된 당시 방계적으로 지위 전환되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군 참모 총장이자 사령관이 되었다. 그가 당직할 당시 또 다른 민간 여객기가 격추되었는데 이는 텔아비브 발 노보시비르스크 행 Siber Air Tupolev 154 로 이스라엘 이민자 78명을 태우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흑해에서 격추되었다. 이것이 격추되기 전 인터뷰에서 카멘스키 장군은 KAL 007기 격추에 대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진정한 승자 (다시 말해 가장 승진을 많이 한 사람) 은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이다. 그가 사령관으로 있던 소콜 공군 기지에서 겐나디 오시포비치 소령의 수호이 15호기가 끔찍한 임무를 띠고 출격했었다. 1998년 1월 24-25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실린 기사를 보자:

“대한 항공 007기를 파괴시킨 러시아인.  
신임 공군 사령관, 83년 대한 항공 007기 격추 명령  
연합 통신(Associated Press)

모스크바 — 금요일, 러시아 공군은 1983년 사할린 섬 연안에서 대한 민국 국적 제트 여객기 격추를 명령한 지휘관이 신임 총 사령관 임을 시인했다. 당시 그 공격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sup>1</sup>

코르누코프 장군은 1976년 휘하에 있던 조종사가 당시 소련의 최신 전투기였던 미그 25호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잃지 않았다. 또한 KAL 007 사건도 무사히 넘어가 마침내 자신의 군무 최고의 자리인 러시아 전체 공군 총 사령관까지 올랐다.

많은 세계 신문들이 코르누코프의 새로운 지위를 보도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ICAO 1993년 보고서에 첨부된 교신 내용에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즉 코르누코프가 소련군 계급 서열에서 하급 장군에 불과했다는 것에 주목한 신문은 거의 없었다.

코르누코프에게 격추 명령을 하달했거나 방조한 그의 상관들은 모두 면죄받은 셈이다.<sup>2</sup> 그들을 당시 명령 체계 낮은 순부터 나열해 보면 극동관구 공군 사령관 카멘스키 장군, 극동군관구 부사령관 스트로고프 장군, 극동관구 사령관 이반 모이세비치 트레차크 장군, 극동군 작전 지역 사령관 블라디미르 L. 고브로프 장군이다.

1990년 중반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제시 헬름스의 KAL 007 관련 외교 위원회 활동이 활력을 잃고 조사 활동을 중지했다.

외교 위원회 소수당 수석 보좌관 짐 루시어 (그는 나중에 보수 성향의 "Insight" 잡지 상위 편집자가 되었다) 와 그와 함께 활발하게 조사를 추진했던 8명의 위원회 소속 사람들이 해고된 것과 관련있는 듯하다. 은퇴한 해군 소장이며 제시 헬름스 의원의 어릴적 친구인 "버드" 낸스는 짐 루시어 대신 소수당 수석 보좌관 지위에 취임하면서 "완전한 청소"를 명령했다. 낸스 장군은 이 새로운 임무 경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회는 나에게 난장판이었습니다. 제 군사적 마인드에 따르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KAL 007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어이없이 끝났을 뿐 아니라 POW (전쟁 포로)/MIA(전투 중 행방 불명된 군인) 사안에 관련된 많은 활동가들과 가족들도 이 위원회가 지지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급격하게 떨어 뜨리는 것을 곧 인지했다. POW/MIA와 KAL 007 기 사건은 헬름스 의원이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게 이들 문제 둘 다에 연관된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얽히게 되었었다. 1991년 12월 5일, 헬름스 의원은 옐친 대통령에게 미국 군인들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 "소련과 다른 공산 국가에 억류되었다가 이 세기 모든 주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수천 수만에 이르는 미군 장병들 신변은 미국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6월 15일 미국을 방문하던 길에 대통령 전용 제트기에서 인터뷰하는 동안 다음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이에 응답했다; "우리가 가진 자료실에 의하면 그들 중 몇몇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전쟁 포로] 이 소련 영토로

<sup>1</sup> 연합통신,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8년 1월 24일-25일, 토-일요일

<sup>2</sup> 계급 서열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 최고 통치자 유리 안드로포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까지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내어 졌으며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강금되었다는 것은 사실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몇몇이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엘친이 했던 말 중 "보내어 졌으며"와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몇 달 안에 불명예스럽게도 정부 관리들에 의해 "보내어 졌을지도 모르며", "그들이 보내어 졌다 해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로 변해버렸다.)

헬름스 의원이 엘친에게 미국 국민들에 관한 편지를 쓰지 단 5일 후인 12월10일에, 헬름스 의원은 KAL 007기에 관해 엘친에게 편지를 썼었다; "1983년 9월1일 당시 소비에트 연합 군대가 대한 항공 KAL 007기를 격추시킨 사건은 냉전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KAL 007 비극은 냉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박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국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암울한 기운을 없앤다면 양국 관계의 진전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3년 1월 8일 엘친은 많은 세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유를 부정해 왔던 것, 소련 해군이 미국 제 7함대를 기만해 왔던 것 -KAL 007기의 블랙 박스 테이프와 비행 기록 장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테이프들-을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 에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에 응답하게 된다. 이로써 러시아 연방은 또한 귀중한 자료인 격추 당시 실제 시간 교신 내용을 제출했는데, 이는소련측이 격추 뿐 아니라 KGB 해안 경비정과 모네톨섬 주변에 있던 민간 어척을 구조 작업에 관련시키라는 구조 임무 명령을 보내고 격추 30분 안에 "구조" 헬리콥터 보낸 것-그래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KAL 007기 승무원과 승객들을 납치하게 되는-을 시간별로 열거/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낸스 장군 하에 있는 직원들이 바뀌고 소수당 외교 위원회 기선이 서로 얽혀있는 POW/MIA와 KAL 007 사건 모두에서 중착을 맞게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측 정책에서 이러한 태도 변화 -보리스 엘친 대통령 측에서 보인 "분위기 청산을 위한" 솔직한 태도; 드물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그냥 넘겨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솔직함은 엘친이 POW/MIA와 KAL 007사건을 인정한 것 뿐 아니라 1992년 같은 시간 대-이 "기회의 창"-에 1979년 4월 2일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850마일 정도 떨어진 스베르드로브스크 (Sverdlovsk) 에 탄저병이 발발하여 94명이 감염되고 이들 중 64명이 죽었던 사건이 러시아 정부가 이전에 주장했던 오염된 고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 시설에 일어난 사고의 결과였음을 인정한데서도 보여진다.

1996년이 되자 KAL 007 생존자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주 분명해졌다. 저자는 승객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여러 상원 의원들에게 제공했고 그들은 이에 대해 국무부에 많은 질의를 보냈다. 그러나 국무부 입법 문제 담당 웬디 셔먼 부국장은 그들에게 매번 똑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최종 조사 보고서에서 ICAO는 KAL 007이 소련군 SU-15 요격기에서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최소한 한 발을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는 상당한 손실을 입어 조종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바다에 추락하면서 폭발했습니다. KAL

007의 잔해는 모네론 섬에서 북쪽으로 17 해리 떨어진 북위 46\_33' 32", 동경 141\_19' 41" 공해 상에 60 x 160 평방미터 너비에 걸쳐 약 174 미터 바다 밑바닥에 잠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거기에 생존자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ICAO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 결론을 반박하거나 허물만한 신빙성있는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고 믿습니다.”<sup>3</sup>

이 맥락에서 “허문다 (undermine)” 는 단어가 사용된 점이 흥미롭다. 이 단어는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물의 기초가 부식 또는 침식당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러한 붕괴 과정을 읽을 수 있다. KAL 007 격추 직후, 국무부는 소련이 내세우는 사할린 섬 남부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무부의 지도국에서 KAL 007 격추 바로 3일 후에 새로운 사할린 공식 지도를 발행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사할린 섬을 남북으로 가르던 경계선이 지워지고 없었다. 국무부 이전 지도에 있던 경계선은 북쪽 지역은 소련 영토, 남쪽 지역은 소련이 점거하고 있지만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미국의 분명한 표현이었다. 이전까지 미국은 사할린 섬 남부 지역에 대한 소유권 결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조인국에 있다고 보았다.<sup>4</sup> 1947년 미국은 남 사할린에 대한 소련의 영유권 주장을 거절하는 서신을 보내기까지 했다.

KAL 007 격추 3일 후에 미 국무부 공식 지도에서 그 경계선이 없어졌다는 것은 미소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양국의 공모가 국제 연합의 ICAO 보고서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공모를 알아차린다면 ICAO 보고서 결론을 유도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종 입장을 내놓게한 바로 그 무엇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KAL 007기의 승객과 승무원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 할 말이 많지 않지만 보통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많다.

첫째, 진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일화들이 있다. 전쟁 포로 실종자 단체의 협의회 '나를 잊지 말아요 (Forget Me Not)'의 월터 오라일리(Walter O'Reilly) 회장이 러시아 연방으로 출장갔을 때의 일이다. 구 루비양카 중앙 KGB 형무소 건물 계단에서 두 남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당신들의 의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라일리는 깜짝 놀라 "그럴리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황급히 빠져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래리 맥도날드 의원 임을 깨닫고 황급히 계단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가고 없었다.

---

<sup>3</sup> 국무부의 답신 전문 (봄 그레이엄 상원 의원에게 보낸 편지) 을 부록 F 에 실었다.

<sup>4</sup>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가맹국들은 포츠머스 조약 (1905년 9월5일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 주에 있는 군항 도시 포츠머스에서 러·일 간에 맺은 강화조약. 이 조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 인정을 받았고 한국은 일제 식민지 길로 접어들었다- 율긴이) 의 조항에 따라 판단하려고 했다. 관련 조항은 남 사할린 섬을 일본에 할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뉴욕 롱 아일랜드의 어떤 목사는 러시아 방문 중,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수감되었다가 감옥에서 KAL 007에 탑승했던 미국인들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인 목사를 만났다. 그들은 격추된 바로 그 주에 서방 민간인 복장을 하고 형무소에 도착해서는 보통 죄수복으로 갈아 입었다고 했다. 이 러시아 목사는 현재 미국 서해안에 살고 있으며 롱아일랜드의 목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에 있는 친척과 자신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 한다. 몇몇 사람들이 그가 사는 지역의 러시아 이민자들에게 형무소 경험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것이다.

KAL 007에 10대 자녀들이 탑승했던 어머니가 전해 준 이야기도 있다. 그녀는 중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숙소인 호텔 방으로 전화가 왔다.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금세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 자기 아이였다고 확신했다.

컴퓨터 전문가인 남편이 007기에 탑승한 또 다른 여성은 남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끊어졌다.

지금은 미국에 사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 출신의 데이비드 스타비츠키 (David Stavitski) 는 이상하고도 으스스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러시아 어로 출간되는 간행물인 <알레프-Aleph>에 실린 글이다<sup>5</sup>. 스타비츠키는 KAL 007 격추 사건 3개월 후 전투 중 향정신성 약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코두모프 (Kodumov) 대령이라는 의무 장교의 도움을 받았다. 두 사람의 논의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초심리학 (정신 감응·천리안 따위의 초자연적 심리 현상-옴긴이) 을 사용하는 문제까지 나갔다. 코두모프는 모스크바 인근의 세르브스키(Serbsky) 연구소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후 역시 모스크바 인근에 위치한 스페르들로프스크 (Sverdlovsk) 연구소에서 채택, 아드누르 (Adnure-가석방) 이라 불리는 실험적 프로그램에 활용되었다<sup>6</sup>. 아드누르는 외국인 포로 피실험자들을 세뇌시켜 그들이 이전 신원으로 미국으로 돌아가 똑같이 생활하되 소련 '지령자'들에게는 충실하고 유순한 정보 제공자가 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sup>7</sup> 코두모프는 KAL 007 승객들이 아드누르

---

<sup>5</sup> David Stavitski, "아드누르 프로젝트가 20세기 비밀이 될 것인가? (Will Project Adnure Be This Century's Secret?), Aleph 1995년 11월 2-9일, 통권 606호, 42-43쪽

<sup>6</sup> 정신 상태 변환 실험센터로 알려진 세르브스키 연구소/ 정신병원은 소련 젤레노그라드의 이전 차관이자 러시아 연방 인권 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멤버인 에밀리아 체르코베르 (Emilia Cherkover) 에게서 놀랄만한확언을 받게된다. 체르코베르는 블라디보스톡과 모스크바에 있는 형무소들과 오르발에 있는 정신병원과 함께 극초단파 (심리/전자기적 애플리케이션) 실험이 1989년과 1990년 사이 모스크바에 있는 세레브스키 연구소에서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sup>7</sup> 아드누르는 흔히 '신부 학교- charm schools' 라고 알려진 소비에트 첩보 훈련 시설의 일종이다. 초심리학적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신부학교'의 모습은 Nelson Demille의 최근작 The Charm School (New York: Warner Books, 1988) 을 통해 (픽션이 많이 가미된 형태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투입될 거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 KAL 007 승객들이 아드누르 프로젝트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소련 과학 연구소와 연관된 의무대 대령이 외국인 포로들(그 중에 KAL 007 승객들도 있다)이 실제로 그런 끔찍한 프로그램 실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천연덕스럽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1995년 2월 24일, 슈프린의 '소련의 형무소, 정신병자 형무소, 강제 노동 집단 수용소 연구소'가 출간한 비망록에는 KAL 007 생존자의 현재 행방, 특히 래리 맥도날드 의원의 행방에 관한 소중한 정보가 담겨있다.<sup>8</sup> 비망록에서 관련있는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미 하원 의원 래리 맥도날드 박사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온 특별 수송차에 실려 모스크바의 루비양카 KGB 비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철저히 격리되었고 심문받기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될 때는 이름이 아니라 '죄수 번호 3번' 이라고 불렸다. KGB 크루초프 위원장이 직접 수차례 심문한 다음 맥도날드 의원은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KGB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레포르토보에서 몇 달간 심문받은 후, 그는 다시 모스크바 근교 수하노바의 KGB 특별 비밀 '다차-여름 별장'으로 이송되어 계속 심문받았다... 1986년—1987년 사이 래리 맥도날드는 카자흐스탄의 테미르-타우 시 근처의 작은 지방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93년 래리 맥도날드 의원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 측의 시도는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 1987년 테미르-타우 북부의 형무소 간수들과 얘기하면서 래리 맥도날드 의원의 컴퓨터 사진<sup>9</sup>을 보여 주었으며 간수들은 비슷하게 생긴 죄수가 1987년 정도에 카라간다에서 특별 호송되어 수감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죄수는 감옥 2층 독방에 엄중하게 격리 수용되었다. 통례를 깨고 그 독방에는 책상과 스프링 매트리스가 들어갔고, 보통보다 훨씬 밝은 전구가 달렸다. 음식도 형무소 식당이 아니라 민간인 식당에서 매일 운반되었고, 주어지는 음식과 흰빵의 양에도 제한이 없었다. 그 죄수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그 죄수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한번도 말을 걸지 않았다. 의무적으로 산책할 때도 그는 별도로 관리되었다. 일 주일에 한 번, KGB 장교 한 명이 카라간다에서 와서 상태를 확인했다. 장교도 죄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간수에게 죄수 상태가 어떤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 특별 규칙을 깨고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지 물어볼 뿐이었다.

“1990년 여름 무렵, 그 죄수는 형무소 벤에 태워져 특별 호송을 받으며 카라간다 이동 형무소로 보내졌다. 이 특별 죄수가 누구인지 그때도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다; KGB 가 그의 파일이 든 봉투를 봉했기 때문에 형무소 직원들도 열어볼 수 없었다.

---

<sup>8</sup> 1997년 2월 6일, 슈프린의 연구소에서 출간된 조사 결과물들이 여러 사람에게 보내졌다. 그 중에는 당시 헤브론에 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반된 주장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미 하원의 로버트 도넌 (Robert K. Dornan-공화당, 캘리포니아 46 선거구 출신) 의원도 있었다.

<sup>9</sup> 컴퓨터 합성 사진은 부록 G에 실려 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 죄수가 모스크바 KGB 지시에 따라 거기 갇혔다는 것 뿐이었다. 카라간다 형무소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려는 다른 노력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KAL 007 생존자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발생한 미국인 전쟁 포로들도 갇혀 있으리라 짐작되는 유력한 수용소들-굴라그(Gulags)-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졌다<sup>10</sup>. 예를 들어, 도널드 하원의원은 쉬프린의 연구 센터로부터 아무르 강 인근 타이가 (북반구의 냉대 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침엽수 림. 원래는 시베리아에 발달한 침엽수 림을 뜻한다-웁긴이) 숲 지역에 현재 대규모 강제 수용소가 세 곳 가동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그곳은 서방인들이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단히 호의적이거나 형무소 체제에 적극 개입한 사람이라면 예외겠지만)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수용소들의 방대한 규모는 겨울철에 90개나 되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수용소 건물 하나에 풍로가 두 세개 있으므로 이 지역에만 수용소가 30-45개나 있다는 말이다!

미국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히 할 일이 있다. 먼저 미 항공 우주국 (NASA) 인공위성으로 가능성 높은 지역을 촬영해 어느 강제 노동 수용소 (구소련 전체에 걸쳐 2,500개가 아직 남아있다)에 외국인이 갇혀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소비에트 내국인이 갇힌 수용소는 죄수들이 주기적으로 풀려나기 때문에, 수용소 인근에 형무소 마을이 생겨난다<sup>11</sup>. 그러나 외국인 죄수들은 절대 풀려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죄수 수용소 주변에는 이런 마을이 없다.

수천 마일 우주 상공의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는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하면 대형 밴과 소형 밴의 구별은 물론 그 차량 등록 번호까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유력한 형무소 위치를 파악하고 분명히 검증해 줄 강력한 저고도 위성들도 있다. 빅버드 (Big Bird) 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코드 467' 인공위성이 한 가지 예이다. “록히드사가 제작하여 1971년 6월 15일 최초 발사된 이 위성은 55피트 길이에 12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정찰 위성이다. 90마일 높이에서 8인치 물체를 식별하는 초고해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sup>12</sup>.”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인공위성 고해상 촬영 기술이 새로운 용도 (비군사용)로 사용된 예들이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사는 한 농부는 의무 사항인 관개 허가를 받지 않고 목화를 기른 죄목으로 애리조나 주 수자원부에 벌금 4,000달러를 물었다. 애리조나 주 공무원들은 수자원부의 물 사용 허가 기록과 프랑스 정부의 위치추적 (SPOT) 위성을 통해 750,000 에이커의 애리조나 농지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한 것이었다.

---

<sup>10</sup> Moscow Bound: Policy, Politics, and the POW/MIA Dilemma (Eureka, CA: Veteran Press, 1993) 을 보라.

<sup>11</sup> 소비에트 수감자들이 풀려나면 대부분 옛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들이 형무소 마을로 집을 옮겨야 한다.

<sup>12</sup> James Bamford, The Puzzle Palace (New York, 1983), 259-260 쪽을 보라



조지아 주 공무원은 상업용 위성의 촬영 기술을 사용해 삼림 조사나 목재 사용 및 채취를 감시해 왔다. 또한 위성 사진을 사용해서 '가정집 베란다처럼 작은 목표물을 추적, 건축 허가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위성 한 대가 대략 6피트 정도 해상도로 10 평방 킬로미터를 촬영하는 데는 850만원 (6,500달러) 가 든다.

KAL 007 피격 사건은 20세기 후반을 짓누르던 냉전의 가장 위험한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희생자들, 그 불운한 269명의 남녀와 어린이를 수색하고 구조하는데 위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기도하면서 공공의 양심 또는 국가적 자존심에 호소하고 언론과 여론에 모든 사실을 알려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 지렛대 받침을 끼울 곳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완고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엑시의 아버지 테이와 사촌 이디스, 토드와 엘리샤의 어머니 베키, 올리비아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이자 올가의 남편인 잰, 토머스과 마가렛의 딸 메리제인, 노엘과 '작은 스테이스'를 포함한 그레펠 가족 일가, 박경화 씨 남편 박 한태씨, Clemson University 태권도 클럽을 창단했던 홍 형웅씨, 조 원철씨의 어머니 관 영경씨, 송 안나씨와 그녀의 딸아들인 이은형씨, 임 종진 박사와 그의 동생 임 종철씨, 박 민식 박사와 그의 아내 박 애경씨, 박 상형, 지상, 수경씨의 아버지 박 일청씨, 유 정수 박사, 그리고 비어트리스 허스트의 딸 프랜시스, 헤럴드와 레노르의 딸 다이앤과 손자 새미, 그리고 나머지 승객은 모두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제시 헬름스 의원이 보리스 엘친에게 보낸 서신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참사입니다. 저는 KAL 007이 이륙하고 난 지 약 15분 후에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을 출발한 KAL 015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두 비행기는 재급유를 위해 앵커리지 공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KAL 007의 불운한 승객들과 어울렸던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숙명의 그 비행기로 탑승하라는 방송을 듣고 제게 작별의 손을 흔들던 귀여운 두 소녀의 모습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두 소녀는 노엘과 스테이스 그레펠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모른척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 “XIII 결론:

**KAL 007은 불시착에 성공했으며, 생존자가 있었을 것이다. 소련 정부는 그간 극악한 거짓말을 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존해 있을 승객들 귀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공화당 의원 연구 보고서 77쪽

수정 날짜: 2005 년 4 월 21 일